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식약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종교개혁기념 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9(통53). 하늘에 가득 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주님, 내가 큰 슬픔 속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가련한 종이 간구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언행과 죄악을 살피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는 사랑의 선물이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엄격함을 강조할수록 인생은 어그러질 뿐입니다. 어떤 인생도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크고 상처가 깊다 해도,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큼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해 주십니다. 진실하고 신실하신 목자이신 주님, 주의 은혜로 모든 죄와 슬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마틴 루터의 기도문)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8:11,12 인도자

♠ 교 독 문 104. 종교개혁주일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조지연 선생 II.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585(통384).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함께

성경봉독 I. 요일 3:11-18 인도자

..... II. 갈 5:1-6 김재영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개혁(改革) 김재흥 목사

..... II. 자유케하는 믿음 말테 리노 목사

연 주	전수정 전수빈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되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을 통하여 참 자유의 길을 맛보고도 욕심에 이끌려 그릇된 길을 걸어가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들, 내가 이루어낸 작은 업적들이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용기를 내봅니다. 물질과 제도에 얽매인 노예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울지마 톤즈’ (KBS 스페셜) 상영	11월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윤미경 집사

10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은 전총길 안정숙 허정운 최영혜
	헌금위원	방문성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약해져가는 소속감

모든 인간에게는 소속의 욕구와 참된 자기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불안은 소속의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안정감을 얻으려면 자신을 그룹, 공동체, 문화에 어느 정도 굴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참된 인간됨과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그룹의 존립근거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밥그릇 잃을 위험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다.

한 개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때, ‘불안 원리’ 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우리 라르슈 공동체는 어느 정도 불안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으며, 진리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 또한 그룹과 공동체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 불안한 상태를 통해서 우리 그룹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드러날 수 있고, 그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진실한 면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 마을, 부족은 아직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강한 결속을 느낀다. 이런 결속은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장로나 리더들은 실질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만약 그 공동체의 누군가가 병에 걸리게 되면 보살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결속에는 핸디캡이 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안전, 협조, 결속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생각을 희생해야 한다. 이런 복종은 젊고 열기왕성한 이들, 구습(舊習)과 가난에 얽매어 살기를 원치 않는 이들에게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많은 공동체에서 드러난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강압적으로 구속하려는 힘에서 벗어나고픈 본능이 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가족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 조직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그 가장 기초적인 소속 단위들이 무너지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들자면, 파리에서 결혼하는 두 가정 중 한 가정은 이혼한다. 프랑스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세 가정 중 한 가정이 이혼한다.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구속 받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나는 우리 서구 사회가 개인의 힘, 권리, 욕구들을 그룹보다 우위에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경쟁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에도 장점은 있다. 그룹을 강조하는 사회는 개인의 자의식과 자유, 재능과 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쟁은 그런 개인적인 능력들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와 권리만을 중시하는 경쟁구조는 우리를 지독한 외로움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경쟁적인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족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절망하기 쉽다. 깊은 외로움은 불안을 만든다. 그런 불안은 외로움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외로움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고, 이상을 실현하려 몸부림 치고, 타자와 진정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또한 외로움으로 인해 사회에 평화와 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오래토록 억눌려온 이들과의 연대 투쟁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서 응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누군가로 하여금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도록 만드는 것도 외로움이다. 또한 사람들은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나 진리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에 기초한 사회는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회는 강하고 공격적인 자세와 승리에 대한 욕구를 강화한다. 또한 온유한 심성의 발달을 저해하고 사람들과의 건강한 협력을 막고 경쟁심과 적대감을 부추긴다. 이런 사회는 개인주의를 반대하고, 모두를 위한 진리와 공의에 바탕을 둔 사회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승리와 힘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정의, 연대, 협동의 윤리와 공공의 선을 위한 윤리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다. 개인의 성공만이 전부다. 서구 사회는 어떻게 해야 개인의 자의식, 자유, 창조성을 발전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개인의 발전에 집중된 생각을 정의와 평화의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재능을 발전 시켜주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이들의 설 곳을 찾아주도록 돕게 할 수 있을까?

- 장 바니에, 『인간 되기』 중에서

연탄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 삶이란 /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경연 김혜권 박재임 박규석 박경선 박애순 임승동 백혜숙 최종원
 박시내 이건식 신영신 원인해 박병구 김정애 이우원 옥귀희 장원호
 박성희 안보혜 김지호 전해리

월정헌금:

김남중 오복순 배부례 서정순 안길상 이형숙 이은자 이소순 이정은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최윤희 노우중 이봉옥 송동준 김진경 이경남
 문홍일 무명

감사헌금:

이봉옥 이재문 임창선 한완식 임정자 박경선 박경원 양재성 임미심
 박숙현 박범희 박미영 방문성 박혜경 문금석 김순복 김용진 박효선
 곽새롬 하재두 최중훈 김금하 이유일 김미희 시므온선교회 무명

생일감사헌금:

권혁신 조병주

녹색꿈 헌금:

박영희 이인웅 오승경 윤정덕 구성실 김용길 최영혜 무명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조 순 덕	장 혜 숙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서 정 순	배 부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최 경 미	서 원 금	이 은 옥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최 종 미	박 정 숙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문 금 석	조 병 주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정 선 희	백 묘 현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야 외	김 정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최 속 화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오 복 순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권 미 숙	이 정 은
가버나움	안 흥 숙	오 현 정	정 현 주	안 흥 숙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정 영 선	최 현 옥
갈라디아	유 경 순	김 수 진	박 옥 식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봉 배	방 극 숙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김 화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종교개혁기념주일** : 오늘은 종교개혁 493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 **오후집회** : 오늘 오후에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담은 '울지마 톤즈' 다큐 (KBS 스페셜)를 상영합니다.
3.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11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추수감사절** :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2부 연합으로 11시에 예배드립니다.
5. **찬양의 가을걷이** : 추수감사절 오후에 2부 찬양대와 참빛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제가 열립니다.
6. **결혼** : 이번 주 토요일(6일) 오후 1시 30분에 박지인 씨와 박종원 씨가 백악관웨딩문화원 (3층 사파이어 홀)에서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7. **신앙실천** : 물건과 자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아끼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다음 주 : 가나안 속)

* 설거지 봉사 : 이건설 김남홍 이준하 (다음 주 : 전충길 남창모 김기성)

* 새교우 : 이용규 (4남) 노지현 (6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